

갈대상자 소식지

함께 엮는 갈대상자

첫 시작, 첫 열매, 첫 월급 기부 소식
하나님만이 기억하실 익명의 사랑

Why Not Change the World?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마음의 근육을
커피, 농업, 그리고 선교

한동인

총장님과 함께한 저녁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한동에서, 한동으로!

한동 소식

“공부해서 남 주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 벤엘관 완공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여들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엡 5장 9-11절]

갈대상자 소식지 2012년 제 42호

발행처 : 한동대 발전협력팀

갈대상자 소식지 전자우편

: sarang@handong.edu

기획 및 디자인_김민정, 김철민, 박지은

글_서아현, 오혜민, 차형진

일러스트_최혜진

사진_허두석

도움주신분_신승화, 정종유, 손일영

CONTENTS

함께 엮는 갈대상자

나의 가장 약함을 아시는 주님	04
“한동의 정신, 졸업생도 계속 이어가자요”	07
평범한 주부의 특별한 후원 이야기	10
첫 시작, 첫 열매, 첫 월급 기부 소식	12
첫 열매에 대한 작은 보답	14
하나님만이 기억하실 익명의 사랑	16

Why Not Change the World?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마음의 근육을	20
커피, 농업, 그리고 선교	24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사랑	26

한동인

몸과 마음, 영의 트리니티 순결을 지켜나가요	30
“주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려요”	32
진심을 싣고 사랑으로 달렸습니다!	34
총장님과 함께한 저녁	36
한동 이색 모임, ‘한동 편입생 모임’	38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40
한동에서, 한동으로!	42
돌이켜 보니 그분의 인도하심	44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중한 마음	46

한동 소식

“공부해서 남 주기” 어렵지 않아요!	50
버팀: 벅힘: But HIM	52
하나님의 집' 뽀얏관 완공	54



나의 가장 약함을 아시는 주님

교만이라는 두터운 벽에 부딪히며

한동 나눔 간증 공모전 대상 이유림(GLS 12)

저는 저의 연약함 때문에 한동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사실 한동에는 수많은 간증과 놀라운 사연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한동대학교의 학생 한 명 한 명, 모두 다 각자의 소명을 따라 부르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의 연약함을 다루시기 위해 이곳 한동대로 부르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1남 2녀 중 맏딸입니다. 저희 집에는 조금 특별한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이 불편한 제 두 동생입니다. 이 아이들로 인해 저는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돌이 조금 지났을 무렵 연년생으로 여동생 유빈이가 태어났습니다. 동생은 태어나자마자 40도를 오르내리는 고열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고, 몇 달이 지나도 목초차 기누지 못했습니다. 24시간 보살핌이 필요하였는데 아버지는 신학 공부를 하고 계신 중이시어 중학교 교사이시던 어머니가 휴직을 하고 동생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얼마 후 정밀검사 결과 동생은 뇌성마비 1급 장애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 뒤 저희 가족의 삶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폭풍 같은 몇 년을 지낸 후, 어머니는 복직을 하였고, 아버지도 교회에서 목사님으로 시무하시며 장애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타는 동생과 아버지의 장애인 사역으로 어려서부터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때로는 철없는 아이들과 어른들의 수군거림에 상처를 받아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동생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 앞에서 당혹감을 느끼는 등 속상한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어두운 생각과 마음을 금방 밝은 생각으로 바꾸는 성격을 소유하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저는 곧 불편한 몸으로 인해 휠체어를 타야하고, 말도 어눌한 제 동생을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소개하기도 하는 등,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무렵 저희 가족의 삶은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 후,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또 한 번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산부인과를 다녀오신 부모님께서 어두운 표정으로 정말 믿겨지지 않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림, 유빈아. 네 엄마 뱃속의 아이가 다운증후군이

란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 순간 하나님이 죽도록 미웠습니다. 왜 우리 가족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 명이면 죽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는 원망과 분노가 있었지만 제 입에서는 “엄마 아빠, 잘하셨습니다!” 라는 울음 섞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부모님은 그 때 마음이 무척이나 끈고하고 힘들었는데, 열네 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칭찬과도 같이 들렸다고 하셨습니다.

이듬해인 2006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저희 가정에는 장애를 가진 또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을 놀라운 일들을 하나씩 시작하셨습니다. 막내 동생이 태어난 후, 아버지께서는 당시 흥행했던 영화 ‘말아톤’의 실제 주인공인 배형진 군을 중심으로 ‘말아톤 복지재단’이라는 장애인복지 재단을 설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주간보호센터와 그룹홈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직업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이야기가 여러 사람을 통해 알려지면서 기독교 방송 등에 소개가 되어 장애아를 입신한 가정의 부모들의 마음을 돌이킴으로 유산이 줄어든 사례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첫째 동생 유빈이 교회예배와 수련회 등에서 간증을 하며, 큐티책에도 실리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하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이십 년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이루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겪은 지금 문득 깨달은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현장의 중심에 있었던 제 그것이 진심으로 저와 상관있는 일이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동생들의 장애가 마치 저의 트로피인 양 교묘하게 치장하여 저를 더 착하고, 의롭게 보이도록 애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저를 인정하며 칭찬했고, 제 마음에는 어느새 교만이라는 단단한 벽돌과 시멘트로 만들어진 두꺼운 벽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교만함이 깨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한동대 수시 준비 과정이었습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제 생애 어느 때보다도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시를 위해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며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가운데, 그간 잘 감추어왔던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 둘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좋은 선배로, 학생회장으로, 성실한 학생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것들이, 사실은 제 안에서 교만의 모습으로 오

랫동안 뿌리내리고 있었음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수시를 준비했던 두어 달 동안, 모의 면접 연습을 할 때 말문이 막혀버리고, 자기소개서를 제대로 쓰지 못해 수정 작업을 거듭하면서 말 그대로 저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안의 교만의 벽이 무너지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졸업 전 제게 주신 기회의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빛진 자의 심정으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의 경험을 하게 되었고, 교만함을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는 저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에 정말 셀 수 없는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게 한동대학교라는 또 다른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많음을 깨달았으니 새롭게 허락하신 한동에서의 4년, 아니 그 이상의 선물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곳 한동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임하게 하는 소명을 발견하고, 저 이유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선물을 하나하나 풀어가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이유림 (GLS 12)

* 본 간증문은 본인의 허락 하에 재편집되었습니다. 전체 간증문은 발전기금 홈페이지 감사의 글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동의 정신, 졸업생도 계속 이어가야죠”

리오니 힐 캐피털, 5만 불 기부로 한동 펀드 조성

정규학기가 끝나고 적적하기만 했던 한여름의 한동에 반가운 얼굴들이 찾아왔습니다. 7월 3일 화요일, 리오니 힐 캐피털(LEONIE HILL CAPITAL)의 대표인 조승현 졸업생(97)과 싱가포르 본사 이사인 지나 행(Gina Heng), 그리고 한국 지사 리서치 팀장인 이재목 졸업생(98)이 함께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 날, 리오니 힐 캐피털은 한동대와 산학협력을 맺으며 5만 불을 기부해 '한동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조승현 졸업생(이하 조), 그리고 그의 배우자이자 파트너인 지나 행(이하 지)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동대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성실과 정직을 강조하는 진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만을 강조하는 대학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지를 고민하는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김영길 총장님의 학교 소개가 끝나자, 조승현 동문측에서는 투자 증서를 한동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한동은 조 동문의 회사가 한동의 가족기업임을 증명하는 동판을 전달합니다. 한동에서 성장한 열매가 한동의 파트너가 되어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행사가 끝난 뒤, 여전히 반가운 미소를 띠고 있는

Q 지나 행씨는 싱가포르의 세계적인 명문학교 Raffles Girl's School을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Univ. of Pennsylvania)를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세계적으로 좋다는 명문 교육을 받으셨는데, 한동대에는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지: 저는 한국처럼 교육열이 높은 싱가포르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요, 한동대는 교육 측면에 있어 상당히 진보적인 대학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어졌고요. 다른 대학과는 사뭇 다른, 한동만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Q 조승현 동문께서 일하고 계신 회사 '리오니 힐케 피털'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조: 금융 쪽의 일을 계속 해오다가, 2007년에 싱가포르 기반의 헤지 펀드*를 설립했습니다. 주로 화교 자금을 운영하며 퀀트 펀드* 운용과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털이 주 업무입니다. 창업 이후 헤지 펀드 업계의 전문가들이 파트너로 참여했지요. 현재 싱가포르 본사를 기반으로 한국, 미국,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 등에 지사가 있고 홍콩, 일본, 미국 등지에 파트너 회사들과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이번에 5만 불 상당의 주식을 학교에 기부하셨는데, 어떤 계기였나요?

조: 한국 지사에 이재목 졸업생과 윤대근 졸업생(09)이 함께 일하고 있어요. 한동 학생들이 함께 있어서 그런지 학교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한동대에 후원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한동 펀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지요. 현재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소셜 벤처 캐피털 사업과 NGO 등에 후원하는 재단사업의 일환이기도 하지요. 그 첫걸음으로 한동에 5만 불의 종자돈(Seed Money)을 기부하게 된 것입니다.

Q 기부 방식이 기존에 해오던 것들과는 다른데요.

조: 그냥 기금의 형태로 기부할 수도 있었지만 한동에 더 장기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연락하며 상의하는 중에, 오래 전부터 생각해오던 펀드 형태의 기부를 떠올렸습니다. 사실 창 시절부터 한동대에도 '하버드 펀드' 나 '예일 펀드' 처럼 학교에 장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금이 조성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왔습니다.

Q 이번 협약이 시작 단계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바라는 바가 있다면요?

조: 5만 불로 시작하긴 했지만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 발판이라고 생각해요. 저희처럼 한동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들을 계속 찾아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기부를 더욱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요즘 학교에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졸업생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시기 같아요. 우리가 받았던 만큼 다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었지요.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한동의 정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소식지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조: 한동이 세워질 초기에 총장님 이하 많은 교수님, 교직원분들, 그리고 한동 밖에서 기도로, 물질

로 후원해주시는 분들의 헌신으로 학교가 지금까지 자리왔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분들의 헌신으로 자라난 졸업생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그분들의 열매가 어떻게 자라났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계속 한동의 정신을 이어가야죠. 저희와 생각을 함께 하시는 동문들이나 후원자분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백 년, 이백 년이 넘도록 한동대의 사역을 뒷받침하는 펀드를 키워갔으면 합니다.

재학생 시절부터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얻은 수익을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단위로 계속해서 갈대상자에 기부했다던 조승현 동문. 하나님 앞에 선 아름다운 열매가 또 다른 귀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선한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 헤지 펀드(Hedge Fund): 투자 위험 대비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적극적 투자자본
 ▪ 퀀트 펀드(Quantitative Fund): 직관적·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계량적 분석기법으로 투자하는 펀드

평범한 주부의 특별한 후원 이야기

그저 하나님의 사람을 배출해 주시길...

지난 2007년부터 매월 십만원씩 후원을 해주신 정 O숙 후원자님께서 올해 1월부터 매월 백만원으로 기부금액을 올리셨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매월 기부하시는 일에 감사한 마음과 함께, 무슨 이유로 이렇게 기부금액을 크게 올리셨을까 하면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 경상도 억양이 제 귀에 닿았습니다. 한동인들을 대신해 감사를 드린다는 제 이야기에 정 O숙 후원자님은 연신 겸손해하시며 쑥스러워하셨습니다. 처음엔 학부모님이신가 싶었는데 뜻밖에도 한동대를 다니는 자녀도 없을뿐더러 학교를 찾아온 적도 없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동대학교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은 어느 집사님께서 제게 선물하신 갈대상자라는 책을 읽고 난 후였습니다. 그 후에 제가 출석하는 사랑의 교회의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석을 하던 어느 날 새벽에 김영애 권사님께서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자 교회 앞마당에서 갈대상자 후원용지를 나누어주어 받아왔습니다. 으레 받게 되는 후원용지 중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갈대상자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와, 또 김영애 권사님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것이었죠. 그 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십만원씩 한동대에 후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평범한 주부입니다. 콩나물 값을 아끼고 자가용도 안 타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어떻게든 돈을 지혜롭게 쓰려고 고민하며 사는 사람이지요. 하지만, 한동대같이 하나님의 인재를 잘 키워내는 대학이라면 마음뿐만 아니라 제 재물도 함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십만원이라는 돈도 적은 돈이 아니었기에 다달이 기부금을 내러 은행에 가면 솔직히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유혹이 들 때도 있어서 아예 자동이체로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처음 먹은 마음이 변치 않도록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언제부턴가 저는 그분의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분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보냈던 무를 기억하시곤 처음 받은 때가 생각나셨던 듯

광장히 즐거운 목소리로 그 때를 떠올리며 이야기 하셨습니다.

“가을에 감사의 표시로 주신 무는 정말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사실 시장에 가서 사면 오천 원도 안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한동대에서 받은 그 무는 제게 또 다른 기쁨을 주었어요. 귀한 무를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고 보니 저도 감사를 드리네요. 보내 주신 무, 잘 먹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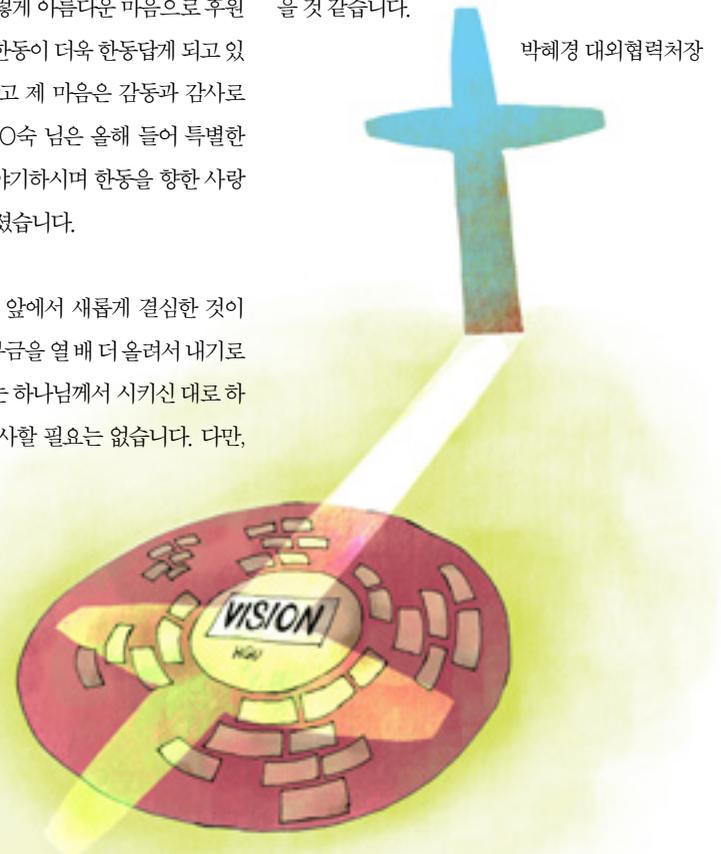
감사를 드리기 위해 드렸던 전화에서 오히려 감사를 받게 되다니...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후원을 하시는 손길 덕분에 한동이 더욱 한동답게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제 마음은 감동과 감사로 벅차 올랐습니다. 정O숙님은 올해 들어 특별한 결심을 하셨다고 이야기하시며 한동을 향한 사랑의 당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연말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심한 것이 있어서 한동대에 기부금을 열 배 더 올려서 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는 것뿐이니 제게 감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제가 기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동이 처음 마음을 변치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키워서 배출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창 밖의 비전광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자녀를 보내신 것도 큰 사업을 하시는 것도 아닌, 한동과 큰 연관도 없어 보이는 평범한 한 주부의 결심과 후원이라 그런지 하나님께서 한동에 거는 소망과 기대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 더욱 입증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기부자님과 나는 짧은 통화가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혜경 대외협력처장



첫 시작, 첫 열매, 첫 월급 기부 소식

올 해도 김태원(05) 동문 등의 기부 이어져

이번 학기에도 어김없이 첫 월급 기부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동대학교에서의 과정을 성실히 마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동문들이 첫 시작의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한동대학교에 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첫 월급을 기부한 몇 명의 동문들 중 현재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사인 미국계 기업 오라클(Oracle)에 첫 발을 내디딘 김태원 동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오라클에 입사한 첫 번째 한동대학교 졸업생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라클은 어떤 회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IBM의 최대 경쟁사라 할 수 있는 “오라클(Oracle)”입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발을 주로 하고 있으며 회사는 삼성역 아젠타워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영업 분야에 지원하였고 아직은 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다양한 부서를 경험하며 제품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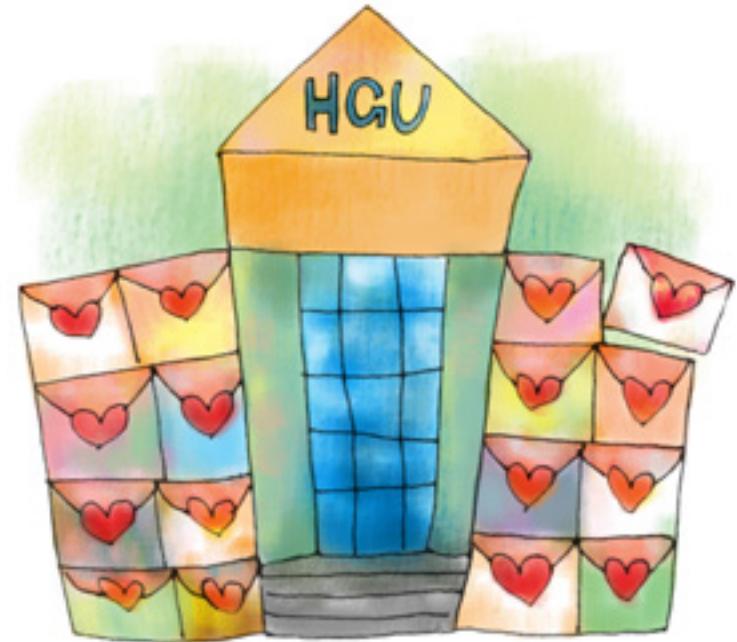
Q 입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어떠했나요?

저는 남들에 비해서 취업 준비를 좀 늦게 한 편입

니다. 3학년을 마치고 회계 법인에서 인턴을 한 경험은 있었지만, 딱히 어떠한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것은 마지막 학기부터였고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4-5단계를 거쳐야 하는 면접을 위해 매주 서울을 다녀오며 몸도 지치고 고베를 마시며 마음도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한 끝에 하나님께서는 공인재무분석사(CFA lv1) 통과라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중국어 연수를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3차에 걸친 오라클 회사의 면접을 통과하여 올 상반기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Q 첫 월급 기부를 결심하게된 계기가 있나요?

저는 김영길 총장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 분이 얼마나 힘들게 이 학교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셨는지를 알기에 미약하나마, 제 첫 열매를 학교에 기부 하고 싶었습니다. 이전에도 선배님들이 첫 월급을 기부해왔다는 사실 역시 제가 학교에 첫 열매를 기부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



습니다. 이 전통을 제가 이어받게 되어 기쁩니다. 이후에도 첫 월급을 기부하는 전통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한동대학교에 보고 싶은 교수님들, 후배들,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학교를 다닐 때는 이 조그만 시골 동네를 벗어나고 싶다는 답답한 마음이 사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졸업하고 나니 대학 다닐 때가 행복하다는 선배님들의 말이 많이 와 닿았습니다. 정말 저를 많이 아껴주신 교수님들이 많이 그립고, 기회가 된다면 자주 찾아 뵙고 안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후배들에게는 글로벌 비전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들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획일화 된 생각이나 유행을

따라가는 것보다 글로벌 비전을 가지고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추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입니다.

김태원 동문은 한동대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첫 월급 기부를 꿈꾸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도 첫 월급을 받은 후에는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주변 사람들에게 월급 턱을 내고 싶어 잠시 고민을 하기도 했었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서 꿈꾸어 온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부를 하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첫 월급 기부를 위해 ATM기에서 송금을 할 때에 너무나도 뿌듯함을 느꼈다는 김태원 동문에게서 학교를 향한 애뜻한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첫 열매에 대한 작은 보답

첫 월급 기부동문에게 감사의 뜻 전달

벚꽃이 흩날리는 4월 28일, 서울 한남역 근처에 있는 서울드림교회에서 한동인이 모였습니다. 200여 명의 졸업생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자신들의 활동과 모임도 소개하고, 고대 하던 총장님도 뵙는 등 “2012년 한동대 총동문회”가 있었습니다. 한동대 총동문회는 한동의 모습답게 찬양과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마치 학교 채플로 돌아온 듯한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이후 각계 각층의 졸업생들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 있는 한동인들과의 모임을 통해 세상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모임을 통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비전을 이루어 나가며 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그 방법을 찾고 기도하는 졸업생들의 모습을 보며 한동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귀한 시간 중에서 모교인 한동대를 위해 헌신한 졸업생의 사랑을 되돌아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동대 졸업생들이 사회로 나가서

얻은 첫 열매인, 첫 월급을 몽땅 한동에 기부한 졸업생은 약 60명 정도입니다. 한동대는 그 큰 사랑에 대한 감사를 조금이라도 보답 하고자, 첫 월급을 몽땅 기부한 졸업생들에게 처음으로 감사패를 준비했습니다. 작고 투명한 직사각형의 유리 속에 우리 학교의 효암채플이 예쁘게 새겨져 있는, 한동을 기억할 수 있는 감사패였습니다. 선배들의 소중한 사랑에 비해서는 정말 작은 감사패에 불과하지만, 조금이나마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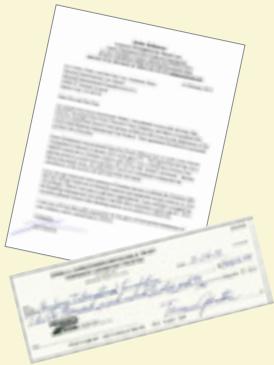


이날 총장님께서 직접 서울로 찾아오셔서 감사패를 전달해 주시고 안이주셨습니다. 감사패를 전달받은 졸업생 김대균(언론정보 05)은 “오히려 기부를 통해 더 받은 것이 많다”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60명의 선배님이 감사패를 받게 된 것에 대해 “모교에 기부하는 걸 잘 모르고, 주로 모 교회에 기부를 해서, 60명 정도밖에 드러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특별히 자신만 감사패를 받은 것에 대해 미안해 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참석한 다른 한동인들 또한 감사패 전달식을 지켜보며 다같이 감동을 느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한동다움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한 선배님이 “서울에서 내리는 비쯤은 우산 없이도 아무렇지도 않게 맞을 수 있는 것” 이라고 표현하면서 한동다움에 대해 다시 한번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한동인들이 ‘작은 한동’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동대에서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세상을 변화 시킬 수 있는 한동인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기억하실 익명의 사랑

국제법률대학원에 사랑의 손길 이어져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아니냐” (미가서 6:8)

여기, 하나님과 함께 공의를 행하는 이들이 있습니
다. 바로 한동 국제법률대학원에 사랑의 손길을 내
민 익명의 기부자들입니다. 한동 국제법률대학원
(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국제적 역량의 미국 변
호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입니다. 최근 이곳에는 익명의 기부자 두 분께서 학생들
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할 익명의 기부자께서는 미국에 있는 재외동포이십니다. 국제법률대학원에
있는 한국 학생들 중 가계가 곤란한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20,000여 불을 기부하
셨습니다. 현재 한동 국제법률대학원에는 외국인 학생들이 약 20퍼센트, 한국인 학생들
이 약 80퍼센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국인 학생들은 외국인 학생들에 비해 장학금 기회
가 적습니다. 법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한국 학생들에게는 또 하나의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또 한분의 기부자는 지금은 소천하신 분입니다. 기부자님께서 미국으로 이민 가신 후에
평생 사업을 하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어렵게 돈을 모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천하시기

전, 평생 모으신 돈 중 일부를 “비전이 있는 미션 스쿨에 기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셨
다고 합니다. 기부자님께서 한 지인에게 “기부할 만한 좋은 미션 스쿨을 소개해달라.”고
말씀하셨고, 그 지인 분은 한동대를 소개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지인 분이 바로 국제법률
대학원에 출강을 오시는 외래교수님이셨던 것입니다. 한동을 전혀 모르셨던 기부자님께
서는, 이런 계기를 통해 30,000여 불의 장학금을 익명으로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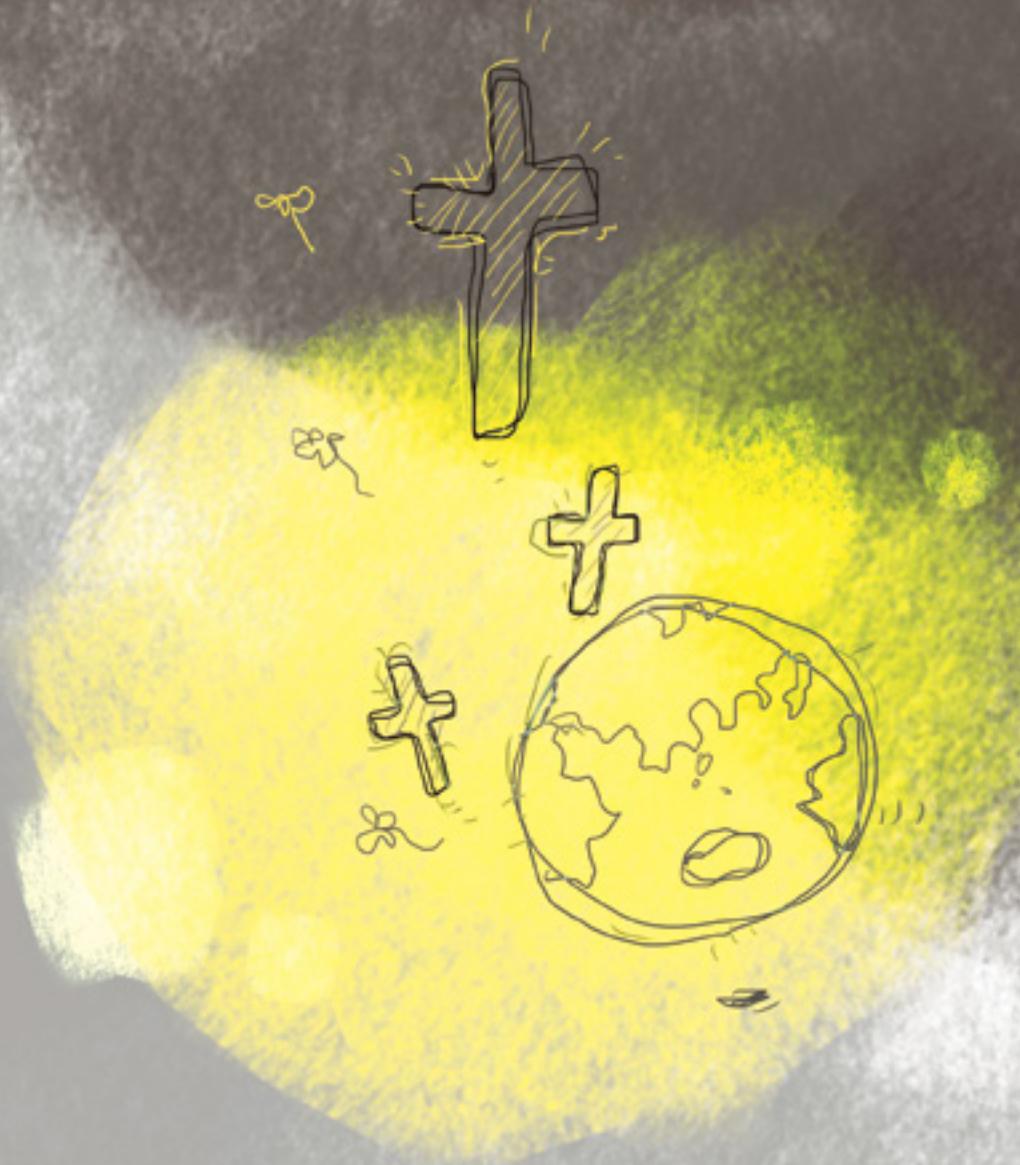
국제법률대학원 부원장 이희연 교수님은 “국제법률대학원의 경우 많은 후원이 외국에서
들어온다. 한국의 일반적인 학교와는 다른 한동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다.”며 “이
러한 기부자님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같은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기부 소식을 들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 기쁘고 또 은혜롭
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두 분 말고도 한동을 위해 헌신하시는 소중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
님의 대학’ 이길 소망하는 한동을 품고 자신의 재물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들... 오직 하
나님만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기억하시고 미소 지으시리라 생각합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한동에 모였습니다. 한동의 정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를 이곳에서 풀어봅니다. ”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마음의 근육을

엠트리(Mtree) 대표 최영환(99) 동문

최영환 동문(99)을 설명하는 수식어는 매우 다양합니다. 2004년 졸업 후 최전방의 정훈공보 장교로 복무하며 '강타', '양동근' 등의 연예인 병사들과 함께 뮤지컬 순회공연을 선보였던 프로듀서, 제대 후에는 전 세계의 저명인사들을 만난 후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강의록을 전해준 책 <우유과 대학을 빌려드립니다 (21세기북스)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문화예술기부"라는 새로운 기부 방식을 만들어낸 비영리 단체 "엠트리(Mtree)"의 대표로 활동 중입니다. 엠트리의 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최영환 동문을 영상통화로 만나보았습니다.

Q 어떤 단체인가요?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전 세계의 열정과 전문성 있는 청년들을 네트워킹하여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도움을 주는 비영리단체입니다. 2009년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아프리카 버넝으로 21명의 엠트리 자원봉사단이 첫 출발을 하였습니다. 전 세계의 미술 전문가

들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미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리고그그림을 뉴욕의 갤러리에서 전시하여 전시 수익금으로 다시 재기부를 하는 방식의 "문화예술 기부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Q.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쳐준다는 발상이 매우 새롭습니다. 엠트리를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한동대학교 재학 중에 방학 때마다 개발도상국으로 전도여행을 다니곤 했습니다. 그 때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느꼈고, 항상 그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 즉, 미래의 비전과 희망을 찾아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것이 엠트리의 문화예술기부 방식입니다. 배가 고프고 아이들이라고 해서 희망을 가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엠트리의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미술이지만 이를 통해 아이들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기르게 됩니다. 그것이 문화의 힘이고 예술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Q. 뉴욕 첼시에서 두 번째 전시회를 여셨다고 들었습니다. 관람객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매우 뜨거웠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큰 반응이었죠. 생전 처음으로 붓을 잡아본 아이들의 그림에는 엄청난 표현력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관객들도 이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현지 사람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아프리카'라고 하면 항상 앙상하게 굶주린 아이들의 사진이 상징적으로 전시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중심이라 불리는 뉴욕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의 미

술품이 당당하게 전시되고 아프리카가 가진 역동성과 힘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성취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전시회 수익으로는 약 1만2천 달러의 기금이 마련됐고 이것으로 다시 아이들에게 미술 용품 등을 사줄 수 있게 됐습니다.

Q. 비영리단체인 엠트리를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어떤 것인가요?

재정적인 어려움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문화예술기부'라는 새로운 기부 방식에 대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더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해의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열린 청년들을 만날 때면 큰 위

로가 됩니다. 뉴욕에서 한인 2세들을 만나보면 보석 같은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힘을 모아 1차 자원봉사를 다녀온 것이지요.

Q.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한동대 학교의 모토를 몸소 실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의 배움이 지금의 활동에 영향을 주었나요?

물론입니다. 한동대학교는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노력하는 개척 정신을 배

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동대학교를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또한 그곳에서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는 개척정신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동대학교는 좋은 선배들, 친구들과, 후배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엠트리의 네트워킹 방식 또한 학교에서 배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5월에 뉴욕에서 바파(BAFA By Artists For Artists)라는 브랜드를 런칭합니다. 뉴욕 예술가와 미술들이 모여서 예술 아이템을 브랜드화해서 판매

하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월 이후에 엠트리의 2차 자원봉사단이 아프리카의 버냉과 케냐로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미술뿐 아니라 패션 전문가들 또한 참여하여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엠트리의 활동을 음악, 건축 등의 다양한 예술 분야로 더욱 넓혀가고 이를 통해 아프리카 아이들이 꿈을 꾸고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앞으로의 비전입니다.

최영환 동문은 인터뷰 내내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을 '돕는다'는 표현이 아닌 다른 표현을 찾으려 애

썼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간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엠트리의 활동은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차원의 일방적 기부가 아닌 함께하며 공생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의 기부 철학 중 하나였습니다. 영상 너머로도 느껴졌던 최영환 동문의 뜨거운 열정이 아프리카의 아이들의 마음에도 전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 엠트리(Mtree)의 자세한 활동 내용 및 후원 방법은 홈페이지 www.outofboat.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피, 농업, 그리고 선교

향긋한 땀흘림으로 복음 전파하는 정주영(01) 선교사의 편지

안녕하세요, 국제어문학부 01학번 정주영입니다. 한동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멕시코 치아파스에 있는 익투스 선교센터에서 자비량 사역 중에 커피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교에 입학하여, 주님과 교제하고, 좋은 사람들과의 사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성품을 얻었습니다. 20대를 보내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최초로 말하신 삶의 모습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농사인 것을 보고, 농사에 뜻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농업이 선교와 사람을 섬기는 데에 좋은 도구임을 알게 되고, 농업을 통해 제가 배운 삶을 실천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쪽에 가까운 선교사님을 통해 멕시코 선교지에 농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자연스럽게 얻은 선교의 비전을 통해, 멕시코로 가게 되었습니다.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가지로 멕시코 최대 커피생산지인 이곳에 너무나 가난한 커피 소농들을 보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고, 한국의 기아대책과 연결이 되어, 공정거래로 커피를 판매하고, 또 구입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소농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새로운 시장과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곳 멕시코 익투스 선교센터는 평신도 팀사역으로, 각자가 가진 달란트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작은 도움이지만, 해를 더해갈수록 그들에게 큰 도움이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도착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우수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사역하는 분들에게도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지에서 생활하고, 농업을 도구로 삼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기로 한 결정에는 결코 후회가 없을 듯 합니다. 저는 참 좋은 삶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동대학교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기도와 지원을 통하여,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뛰어난 후배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웃

에게 나누는 삶을 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익투스 선교센터 정주영(01)

* 치아파스 커피에는 멕시코 치아파스의 회복과 자립을 꿈꾸는 한동 동문들의 사랑과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동 동문들은 공정무역 커피 판매는 물론 소농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돕기 위한 새로운 시장과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도착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발전협력팀에서는 사랑과 헌신이 담긴 치아파스 커피를 예우용 감사선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사랑

전공을 통해 나누며 더 깊어진 사랑, 중국 양로원 설립 프로젝트

한동대의 가치 “배워서 남 주자”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한동대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의 6명의 학생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전공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GEM사업*의 일부로 진행되고 있는 ‘중국 양로원 설립 프로젝트’가 그 주인공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한 자치구가 운영해온 대부분의 양로원은, 일종의 돈벌이 수단이며, 부한 자에게는 좋은 시설을 가난한 자에게는 열악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의 노령인구 증가, 핵가족화 증가로 인해 대다수의 가난한 노인들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환경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진정한 복지를 제공하는 양로원을 만들고 해서 시작한 것이, 이 프로젝트입니다.

양로원 설립 프로젝트는 중국에서 고추농사 사업을 통해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님과 한동대의 한 교수님의 만남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 만남을 통해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양로원 설립에 대한 비전을 구체화 하였고, 그 첫걸음으로 고추농사를 일부 정리하여 그 자금으로 시작한 꿈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 양로원을 통하여

중국의 노인 분들이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6명의 학생은 GEM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양로원 건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GEM사업으로 양로원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은 2011년이었습니다. 처음 프로젝트 팀은 중국 현지의 지역 조사부터 설계까지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며, 부족한 부분도 많았다고 팀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획보다 넉넉하게 많은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다고 팀원들은 한 입 모아 고백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 팀은 이 은혜에 힘입어 이번 2012년 여름에도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적인 설계가 진행중인 상태이며, 이 설계가 완료되면 실제적으로 건물로 지을 수 있도록 현지의 건설 업체와의 연계를 찾을 예정입니다.

중국 양로원 프로젝트를 참가한 인원들은 모두 한 마음이었습니다. 학문과 신앙을 통합하고, 공모전이나 인턴십 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자 모인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팀장인 강현우 학우(공간환경, 06)는 “팀원들이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신의 전공을 진짜 값어치 있게 사용하는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졸업 후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아서 빛과 소금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

면서 강현우 학우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고 고백합니다. 특히 타 학부와의 연계를 통해 양로원 내의 복지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서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 전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양로원이 완성되어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 GEM 사업: Global Engagement & Mobilization의 약자로, 전공을 활용하여 해외의 사회적 약자를 섬김으로써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추구하는 전인격적인 프로그램 및 사업입니다.

한동인 ...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한동인의 삶을 엿보는 공간.
이번에는 어떤 한동인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을까요?”



몸과 마음, 영의 트리니티 순결을 지켜나가요

제33회 한동 순결서약식에 참가한 허두석(07) 학우

“정말 좋았어요. 졸업 전에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순결서약식을 꼭 추천해줄 거예요.” 허두석 학우(산업정보 07)에게는 요즘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얼마 전 본인이 수료한 한동의 ‘순결서약식’의 감동을 다른 이들이 누렸으면 하는 것입니다.

순결서약식은 한동 개교 초기부터 시작된 학생 중심의 문화운동으로, 육체의 순결뿐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순결할 것을 선포하는 행사입니다. 이 서약식을 통해 학생들은, 몸의 순결을 지키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말과 행동, 생각, 그리고 마음까지 모든 것이 투명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개인에게는 참다운 신앙고백을 하게 하고 세상을 향하여는 거룩한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허두석 학우는 이번에 세 번째로 순결서약식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순결서약식은 세 번의 강의와 한 번의 수료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한 번이라도 빠지면 정식적인 수료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지원했을 때는 강의 한 번을 빠



져서 수료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지원했을 땐 서약식에 참석을 못했어요. 식전에 있었던 세 번의 강의도 좋았지만 서약식에 꼭 참가하고 싶어 한 번 더 지원하게 되었어요.”

바쁜 한동 생활 속에서 열정을 가지고 세 번씩이나 지원했던 순결서약식. 마침내 서약식을 참가하게 된 소감은 어떨까요? 허두석 학우는 아직 서약

식의 감동이 가득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수료 전에는 솔직히 순결서약식이 ‘혼전순결을 지키자는 의미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것도 중요한 것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의 신부이니까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더욱 순결하게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혼전순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순결한 관계더라고요. 그분과의 관계에서 온전하고 순결하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정말 영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동에서 순결을 서약할 때는, 당사자를 축복해줄 수 있는 ‘대부’ 나 ‘대모’를 초청하게 됩니다. 특히 허두석 학우에게는 그의 소속 학부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팀 담당 교수님이시기도 한 최인욱 교수님이 ‘대부’로 섬겨주셨습니다. “저의 배경을 잘 아시는 교수님이 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시고 축복해주실 것 같았어요. 서약식 당일 교수님께서 해

주시던 기도가 아직도 기억나요. 이런 좋은 기회에 교수님과 함께 참여하고 새로운 기쁨을 알게 되었다는 것 모두 감사하죠.”

한동의 특별한 행사, 순결서약식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되었다는 허두석 학우. 그는 순결서약식을 통해 순결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를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키고 싶은 순결은 ‘트리니티(Trinity) 순결’이에요. 몸과 마음과 영, 이 세 가지 부분에서순결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실제로 온전하게 지켜나가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 기다리는 것. 지금은 그 훈련이 제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한동에 입학할 때부터 아침마다 배우자 기도를 했다는 허두석 학우.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그의 순결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보다 빛나는 이름다운 일 것입니다.



“주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려요”

성금영 교수님 팀 ‘상큼영’의 팀특송 준비 여정기

모든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수요 채플. 매번 수요 채플을 새롭게 하는 순서 중 하나는 바로 ‘팀특송’입니다. 팀특송이란 한동의 아름다운 문화 중의 하나로, 모든 한동인들이 모인 수요 채플에서 팀끼리 순서를 돌아가며 특송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팀원들간에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며, 수요 채플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열심히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기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지요. 4월 25일 수요채플에서 특송 순서를 맡은 성금영 교수님 팀 ‘상큼영’의 팀특송 준비 여정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D-14: 모임의 시작

시험기간이 한창인 4월 중순의 어느 토요일 밤. 학생회관에 있는 춤 연습실로 학생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스무 명 남짓한 이들은 모이자마자 서로의 얼굴을 보고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다. 이들은 보름 뒤, 수요 채플에서 팀특송을 하게 될 성금영 교수님 팀원들입니다. 설레는 첫 번째 모임은 팀장 이운준 학우(경영경제 08)의 지도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냥 팀특송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여주세요.”

기도가 끝나고 경쾌한 음악이 울려 퍼지자 이운준 학우가 준비해 온 율동을 팀원들에게 선보입니다. 처음에 쭈뼛쭈뼛하던 팀원들은 이내 율동을 곧잘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즐거운 음악과 함께 팀원들의 얼굴에도 즐거운 표정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연습을 마친 뒤, 손에 손을 잡고 마치는 기도를 한 팀원들은 다음을 기약하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흥겨운 특송곡을 흥얼거리면서요.

D-4: 어디서든 계속되는 찬양

첫 모임 이후 시험기간에도 연습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다섯 번 남짓한 공식 연습 시간을 제외하고도 기숙사와 팀원들이 있는 곳마다 특송 연습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주일 밤, 또 다시 연습실에 모인 팀원들은 열심히 춤과 노래를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하고 다음 동작을 배우며 그렇게 4월의 밤은 깊어만 갑니다.



“이 밤이 다 가도록 주님 앞에 춤을 출 거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 이 밤의 특송 연습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요?

D-0: 채플에 즐거운 찬양이 울려 퍼지다

6교시 채플 순서를 맡은 성금영 교수님 팀은 4, 5교시까지도 연습실에 모여 마지막 연습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동안 외웠던 동작 하나하나에 마음을 싣고, 모든 동선을 다시 확인하며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마지막 연습을 마친 뒤 6교시가 되자, 팀원들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채플 무대 위로 오릅니다. 예배팀의 찬양이 끝나자 성금영 교수님의 대표 기도가 이어집니다. 기도가 이루어질 동안 팀원들은 무대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한동인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깨끗이 지키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나자 CCM이 흘러나오며 성금영 교수님 팀의 팀특송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팀원들은 준비한 동작들과 동선들에 맞추어 힘있게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팀원들이 함께 호흡을 맞추어야 하는 ‘

도미노 율동’도 잘 해냈습니다. 찬양과 율동이 너무 풍성해 무대가 좁게 보일 지경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고 싶다는 찬양가사에 맞게 즐거운 율동과 밝은 표정도 잊지 않습니다. 시험기간에 지친 다른 팀 학우들도 ‘상큼영’ 팀의 특송을 통해 또 다른 은혜를 받습니다.

팀특송을 마친 팀원 전영주 학우(상담사회 09)는 “팀모임이 아닌 때에도 매번 모여서 찬양 연습하는 시간이 정말 귀중했고, 이렇게 멋진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찾아와 감사했다”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담당 팀교수님인 성금영 교수님 또한 “학생들이 팀특송을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청년에게 허락하신 것들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시며 “팀특송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몸으로 표현하는 참으로 귀하고, 그 자체로 건강한 경배”라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한동인들의 거룩한 찬양과 율동이 채플 공간뿐 아니라 천국에까지 아름다운 소리로 울려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진심을 싣고 사랑으로 달렸습니다!

800여명 참가한 제5회 사랑의 마라톤을 정리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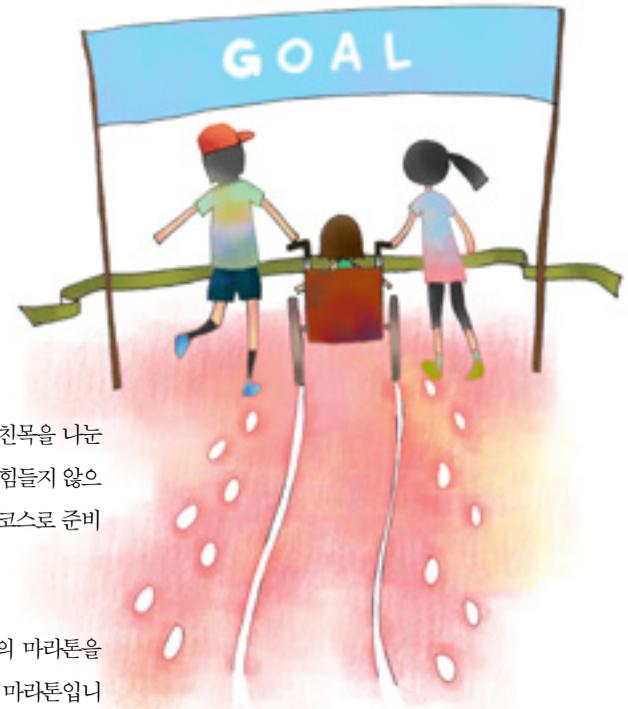
사랑의 마라톤을 마치며

한동대학교 06학번 법학부(국제법 영어 복수 전공) 김유진입니다. 이번 학기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졸업하기 전에 포항을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섬기기로 마음먹으니 팀장, 평의회 의장과 사랑의 마라톤 총디렉터라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동대학교를 섬기고 포항을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세우셨기에 헛되게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의 말씀처럼, 포항을 섬기고 싶다는 이 작은 소원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깨달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 행사를 위해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시간과 힘을 쏟으며 헌신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지식도 경험도 없이 그저 포항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하나로 지금까지 달려왔고 벌써 사랑의 마라톤을 마친지가 2주가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총 2,500만원의 예산을 채워 줄 후원자들과 800명의 장애인/비장애인 참가자들을 한 명 한 명 준비해놓으

셨고 저희의 일은 믿음으로 그 분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처음 기획 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정도, 기획도, 후원자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잔치를 준비하라면서요, 그럼 식탁보는 어떤 색인지, 금수 저인지 은수저인지, 초대할 사람은 누구인지, 음식은 무엇으로 할지 알려줘야 하지 않냐”고 막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한결음씩 한결음씩 알려주시더니 결국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행사 당일의 날씨는 물론이고 너무나 좋고 감동스러운 행사를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도 물론 많았지만 사랑하려 했던 그 진심은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돌아보며 감탄하며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라톤 소개 및 성과

사랑의 마라톤의 참가자들은 한 명의 장애인과 한 명의 비장애인이 한 조를 이루어 약 3키로 되는 구간을 함께 완주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거리 마라톤이 아니라 승부를 떠나 마라톤을 통해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교류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격려하며 친목을 나누는데 의미를 두어서 참가자들 모두가 힘들지 않으면서 즐길 수 있는 환호공원 일대를 코스로 준비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2008년부터 매년 사랑의 마라톤을 개최했었고 올해로 다섯 번째 사랑의 마라톤입니다. 첫 사랑의 마라톤 빼고는 다 한동대학교 캠퍼스 주변에서 해왔었습니다. 이번에는 포항 시내에 있는 환호공원에서 행사가 이루어졌고 포항 기업, 교회, 단체들로부터 후원과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한동대학교 학생들만 도우미로 참가했다면, 이번에는 100명의 일반 시민들이 참가해서 한동대학교와 포항의 연합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분들은 포항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일반 시민들은 포항자원봉사센터에서 그리고 한동대학교는 학생지원팀에서 관리하며 협력하여 300명의 장애인, 300명의 도우미와 200명의 스텝 및 행사 참여를 포함해 총 800명의 인원이 이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EBS, KBS Radio, CBS, 극동방송 등 다른 매체들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도 한 것이기에 아직 포

항시내에서는 사랑의 마라톤이 크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조금씩 포항으로 뻗어 나가려고 합니다.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한동대학교”가 포항에 머물게 된지 벌써 17년이 되어갑니다. 지금까지 포항에 있는 기독교 대학으로써 자리를 지켜왔는데, 세계로 나아가기 앞서 먼저 포항을 더 섬기고, 사랑하고 감동시키는 대학교가 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랑의 마라톤이 그 작은 사랑의 불씨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조금씩 한동대학교와 포항이 함께하는 사랑의 잔치를 키워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처럼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서로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무한 경쟁의 시기에 따뜻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전달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김유진(법학부 06)

총장님과 함께한 저녁

총장님 안방으로의 저녁식사 초대장

평~동~

현관문이 열리자 학생들은 총장님 맥으로 우르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에서 총장님이 반갑게 손을 흔들어 맞아주시자, 여학생들은 “우와” 하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총장님께서 집에 초대해 주신 학생들은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 매년, 매 학기, 총장님께서 집에 계실 때마다 가능하면 학생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쉽으로 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총학생회부터 시작해서, 자치회, 신문사, 새벽기도 팀 등 매 학기 다양한 팀들과 함께 했습니다. 특히 이번은 2012한스트*를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헌신한 2012한스트팀이 총장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이것저것 집을 구경하던 학생들은 집안을 둘러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쁘고 비싸보였던 액자도 가만 살펴 보니 달력 윗부분을 뜯어서 만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장님 맥은 낙엽과 수저, 접시 등 소소한 물품들로 집안을 소박하게 꾸미고 있었습니다. 식사하면서 앉고 있던 의자도, 모양이 서로 다른 30년이 넘는 의자들을 고쳐서 사용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총장님과 사모님과 의 식탁은 감동과 간증으로 넘쳐났습니다. 학생들이 총장님에게 어떻게 해서 한동에 오게 되었는지, 한동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등의 얘기들을 하면서 총장님과 학생들 사이에 감동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여학생은 과일을 깎고 남학생들이 설거지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집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예요?” 라는 한 학생의 장난기 있는 질문에, 총장님께서는 방에 들어가시더니 무언가를 감싸는 듯하게 소중히 다루시면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바로 95학번 선배가 손으로 직접 그린 총장님 스케치였습니다. 집에 자주 찾아오곤 했던 학생이 그려준 스케치를 총장님은 고이고이 책상 밑에 끼 두고는, 집에 오는 사람마다

보여주시곤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동은, 지성만 가르치는 것이 다가 아니예요. 교수님이 멘토가 되어 인성도 영성도 가르치는 것이 한동의 목표예요.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학생들과의 관계와 가르침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녁 시간이 끝나자 너무나 아쉬운 나머지, 학생들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을 달래고 학생들은 푸짐한 식사와 함께 여러 귀한 얘기를 해주신 총장님과 사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현관까지 나오시는 총장님과 사모님을 보며, 그 감사함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총장님의 식사 초대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총장님을 찾아 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해 봅니다.



■ 한스트: HANdong Spiritual Training의 약자로, 한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입니다.

한동의 이색 모임, ‘한동 편입생 모임’

한동으로 편입한 사람들의 모임

매년 한동대로 입학하고자 하는 국내외의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조금 색다른 지원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대학이라는 곳을 보고 한동대로 편입한, 마음이 뜨거운 편입생들입니다. 그와 함께 자발적으로 편입생 모임이 생겼다고 하는데, 임향기 학우(전산전자 09)와 김태겸 학우(경영경제 10)의 인터뷰를 통해 한동 편입생 모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한동 편입생 모임은 무슨 모임인가요?

임향기 학우님(이하 임): 말 그대로, 같은 편입시험으로 한동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특이한 입학 관문이라는, 기존의 한동 구성원과는 다르다는 공통점으로 친목도모 형식으로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이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해서, 편입생으로서 신입생과 다른 부분에 대해 고민들도 나누다 보니 이렇게 한동 편입생 모임이라는 형식으로 커져버렸네요.(웃음)

Q 그럼 주로 무슨 활동을 하시나요?

임: 우선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는 활동을 기본적으로 해요. 같이 식사하거나 MT를 가거나 하는 등이에요. 추가적으로는 갓 편입한 친구들에게 서울에서 설명회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 처음 들어



오는 한스트*때에는 학점과 관련된 졸업요강에 대해 설명회를 하기도 해요. 편입생은 3학년에서부터 시작하는 만큼 신입생과 다른 점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편입생이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모아서 내기도 하죠. 최근에는 영어 학점 제도에 대해서 수정해야 할 부분을 학교측에 제안해서 졸업요강 학점이 수정이 된 부분도 있었어요.

Q 편입생들이 한동대로 편입한 이유는 주로 무엇인가요?

정말 다양해요. 처음부터 한동대에 오고 싶었는데 수능 성적이 아쉽게도 안 도와줘서, 다른 학교에 있다가 편입해서 한동대에 결국 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 대학교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서 한동대학교에 온 사람들도 있구요. 그중에선 외국의 정말 좋은 대학교에 다니다가 온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공통적인 이유는, 대부분이 신앙적인 이유에서죠. 소명과 사명을 갖고 학교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배우고 섬기겠다는 남다른게 굳은 결심과 결단을 하고 한동에 온 사람들이죠.

Q 한동에 실제로 오니 어떠신가요?

김태겸 학우님: 다른 학우들이나 교수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받아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타 대학에서의 편입생들은 기존의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하지만 한동대에는 팀 문화, 기숙사 문화, 교수님의 관심 등으로 쉽게 융합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학우들이 편입생들에 대해 무엇보다 한동을,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편입한 학생이라고 여기고 다른 점 없이 대해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편입생으로의 여러 고민들을 나누는 지금의 모임도 있어서 좋구요. 학교측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이해하고 배려해 준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죠.

인터뷰로 함께 한 임향기 학우도, 김태겸 학우도 모두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한동에 오게 된 사연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쉬운 결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가지고 온 귀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한동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하는 편입생 모임이 더욱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스트: HANdong Spiritual Training의 약자로, 한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주 특별한 편입생, 김진오 학우 이야기

김진오 학우(경영경제 08)는 올해 한동에 첫 발을 내디딘 편입생입니다. 음악만을 좋아했던 이 학우가 한동에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친누나가 한동대에 다니는 김진오 학우는 재작년 여름, 누나의 기숙사 짐 옮기는 것을 도와주러 학교에 처음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한동대를 오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때 누나랑 채플에 갔었는데, 찬양팀이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신앙이란 것을 잊고 살 때였는데, 한 15년 만에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 학교에 오고 싶는데 허락해 주신다면 저 찬양팀에 가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기도가 내 속에서 흘러나왔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받고, 재작년 여름부터 편입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송 활동으로 바빴던 재작년에는 아쉽게도 낙방을 하게 되었고 1년이란 기간을 더 공부한 뒤 마침내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입 면접 당시, 지금의 팀 교수님이 면접을 보셨었어요. 첫인상이 차가워 보이시고 저한테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았어요. 제가 방송 활동 같은 이력을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꼭 알고 싶어서 왔다고 말씀 드렸어요. 나중에 편입학 오리엔테이션 때 교수님을 뵈었는데, 그 때 그 말 때문에 뽑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죠.”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김진오 학우는 대학교회 찬양팀 ‘프레이즈’에서 드럼으로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전 학교에서도 실용 음악을 전공하고 군대도 군악대로 복무했던 그는 사실 밴드 ‘더 트랙스’의 드럼으로 2년 동안 방송을 한 특별한 이력도 있습니다.

“사회 활동을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하다 보니, 학교에 있는 이 친구들이 참 귀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면 큰 영향력을 끼칠 거



리는 것도 제 눈에는 보여요. 이렇게 학문적, 신앙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일하는 사람이 사회엔 그리 많지 않거든요.”

학생들이 교수님을, 교수님이 학생을 정말 아끼는 한동의 모습도 김진오 학우의 눈에는 신기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수업 전에 이루어지는 기도,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도전의 말씀들, 수업 외의 일상 생활에서도 느껴지는 한동만의 무언가가 매일 김진오 학우를 감동시킨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은혜관 일층에 있었는데, 누가 급하게 계단을 뛰어내려 오면서 현혈증이 있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사연인가 했더니, 어떤 교수님의 사모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급하게 현혈증을 모으고 있다고 했어요. 다른 학교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이런 일들을 직접 겪으면서 정말 한동이 다르구나, 생각해요.”

경영과 어문을 전공하고 있는 김진오 학우는 한동에서 배우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남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특히 국제이동보호기구와 같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도움을 주는 일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늦게 시작한 공부이지만 그래도 최대의 열심히 한 발짝씩 걸어가고 싶다는 김진오 학우. 무엇보다 하나님을 꼭 다시 알게 되는 대학생살이 되길 기도해 봅니다.

한동에서, 한동으로!

95학번 국제어문학부 김완진 선배님, 한동대 교목으로 돌아오다

어느덧 한동의 나이 열여덟. 이제는 한동대학생이 자라고 자라 학교 교목실을 섬기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95년 개교 당시 채플에 앉아 설교말씀을 들던 한 아이가, 이제는 그 채플에 서서 후배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에 국제어문학부로 입학한 김완진 목사님이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Q 졸업 후에 무엇을 하셨나요?

음, 저는 졸업 후에 몽골에서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3년 넘게 선교사역을 했어요. 그 후 4년차 되는 해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구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 오기 전까지는 온누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답니다.

Q 한동 대학교에는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

학교에서 불렀으니가 왔겠죠.(웃음) 사실 목회자로서는 다양한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의 경험이 소중한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보다 우리 후배들을 만나고 싶기도 했고, 정말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한동대학교에 보내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말씀 가운데에서도, 상

황 가운데에서도 확신을 주셨지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와 떨기나무의 말씀을 주시면서 소명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 드린 대로, 제가 한동대 출신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일주일 내내 갑작스럽게 한동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 외에도 하나님이 많은 확신을 주셨죠.

Q 95년도의 한동과 지금과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라고 하면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거죠. 당시에는 건물이 한 동씩밖에 없어서 농담삼아 한동대라고 했는데 말이죠.(웃음)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학생들의 고민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걸 느껴요. 학교내의 문제들도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존재했고 함께 고민했던 것들이죠.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은, 그 당시는 학생 수가 적어서 교수님과 학생 사이가 지금보다 더 굉장히 끈끈했다는 거예요. 교수님과 1:1로 성경공부도 하고, 인생의 멘토가 되어서 이것 저것 작은 부분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인원이 많아지면서 그럴 기회가 비교적 줄어들었다는 게 많이 아쉬워요.



Q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느낌이었나요?

편치를 맞았었죠. 현실과는 동떨어진 내 자신의 약한 신앙에 관해서요. 저는 한동에 있으면서 신앙적으로 성숙하다고 착각하고 있던 거예요. 한동의 경건한 신앙적 분위기에 묻혀서 어리석게도 나 자신의 신앙을 제대로 보지 못했죠. 그래서 현실은 크고 힘겹게 다가왔고,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선교는 커녕 내 자신의 현실도 감당하기 힘들었죠.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몽골 사역도 우연찮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작할 수 있었고, 신학도 공부할 수 있었죠.

Q 우리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세 가지를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랑”, “섬김”, “정직” 이에요. 기숙사 제도와 팀 제도를 통해서 진짜 허물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섬김이 무엇

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정직은 정말 지키기 힘든 것이예요. 특히 세상에서는요. 정직은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지켜내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한동의 정신을 꼭 학교 다닐 때 정직하게 자신을 되돌아보아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연애와 같이, 자신이 받은 사랑을 후배들에게 흘려 보내기 위해 한동 대학교로 되돌아온 김완진 목사님. 김완진 목사님과의 인터뷰에서 목사님의 열정있는 모습을 보며, 후배들을 향한 각별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목사님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한동 가운데 진정한 사랑과 섬김과 정직이 넘쳐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돌이켜 보니 그분의 인도하심

OECD 정보기술국 근무 중인 정훈(01) 동문

4월의 화창한 날 말끔한 차림으로 정훈(01) 동문이 한동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오후에 있을 특강에서 강사로 후배들 앞에 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날의 강의에서 정훈 선배는 세계경제협력기구(OECD)에서 인턴을 시작해 정직원으로 계약하며 약 2년여 간 프랑스 파리에서 일하게 된 과정을 후배들에게 들려줄 예정이었습니다.

Q 오랜만에 학교에 방문한 소감이 어떤가요?

마치 지난 학기에도 수업을 들었던 것 같이 익숙하고 편안합니다. 학교의 냄새라던가 분위기가 친숙하네요.

Q OECD에 정식으로 계약 채용된 첫 번째 동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부서에서 일하고 있나요?

OECD 정보기술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OECD는 정책과 관련된 국제기구이고 정보기술국은 OECD 내의 전산 인프라를 담당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회원국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곳입니다. 모바일, 웹 서비스 등을 통해 컨퍼런스나 포럼 등을 효율적으

로 개최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모바일 분야와 개발 및 연구 분야(R&D)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OECD에서 정직원으로 채용되기 매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인턴으로 시작한 과정에서 채용 과정까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인턴으로 시작하게 된 것도 거의 우연히 주어진 기회 덕분이었습니다. 마지막 학기에 등록금이 없어 두 달 여간을 등록하지 못한 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한 교수님께서 기도하신 끝에 어려운 학생이 있다면 돕기로 했다며 학교 측으로 연락을 하였고 그 덕분에 겨우 마지막 학기를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학기에 OECD 인턴 채용 설명회가 처음으로 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영어가 워낙 부족하던 터라 세 달간 이력서와 영어 면접 준비에 매달렸고 기적같이 인턴으로 채용이 되어 프랑스 파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인턴으로 있으며 모바일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될 기회가 열린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직책에 넘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죠. 그런데 그 때 유럽 경제위기가 불어 닥친 터라 저를 고용하는 것을 두고 간부회의에서 팽팽한 논의가 있었

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턴 기간이 끝났다는 메일을 받은 후 몇 시간 뒤에 정직원으로 일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때의 기분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Q OECD에서 2010부터 시작해 거의 2년 가까이 일을 하셨습니다. 일하며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할 때마다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실은 국제기구에서 일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유럽의 프랑스 파리에서 각계의 저명인사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새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알아가고 배우는 것과 프랑스의 선진 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행운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금씩 한국에서 파

견된 외교관님들이 저를 만나면 저를 매우 부러워 하십니다. 본인도 좀 더 일찍 젊을 때에 이런 기회가 있었다면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라면서요. 그만큼 넓은 세상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것은 도전해볼 만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훈 동문은 세 번의 재수 끝에 한동대학교에 입학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늦어졌다는 열등감 때문에 더욱 대학생살을 치열하게 보낸 듯 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돌이켜 보니 자신이 걸어왔던 길들과 거기서 겪은 실패의 경험까지도 결국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으며 웃었습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중한 마음

전 재산을 기부한 농부, 김낙중 선생님 초청 강연

“오늘 강연에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 하나 없이 성실하게 일하면서, 어려운 곳에 본인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을 살아오신 김낙중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특히 한동과는 어떤 연고도 없으시면서도, 순수하게 전 재산 5억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 한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업에 특별한 강사가 소개되었습니다. 수강생들은 박수로 김낙중 선생님을 맞이하며, 5억 상당을 기부한 선생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강사분은 겉보기에도 그저 평범한 80대 농부이었습니다. 미소를 띠며 강단에 오르신 선생님께서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저는 강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앞에서 강의를 하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정말 어렵게 살았지요. 바가지 장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강연은 성공한 이야기라기보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 그 이픈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네 동생들의 가

장이 되어야했던 일, 공부에 소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사연, 과일장사, 바가지 장사 등 안 해본 것 없는 장사 시절, 1원도 허투루 쓰지 않고 돈을 모았다는 이야기들……. 그것들은 5억 기부자의 비범한 이야기가 아니라 담담하게 삶을 살아온 한 농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선생님께서 담담히 전해주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고 중간중간에는 박수 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곤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선생님께서 기부를 계속하신 것은 특별한 계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1966년경, 딸들이 다니던 서부국민학교에 기부했던 것이 김낙중 선생님의 기부 인생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그 학교에 재직하던 교사 친구에게 기부 제안을 받았고 김낙중 선생님은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흔쾌히 기부했습니다. 물론 그 때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못 배운 것이 한이 되었기에, 그리고 자식들의 학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선뜻 기부를 하신 것이지요. 이 일로 선생님께서는 당시 문교부 장관 감사장을 받으시고 MBC 라디오 방송, 경향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부가 무엇보다 큰 영향을 준 것은 바로 김낙중 선생님께 기부의 참 맛을 알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참 맛’은 바로 본인의 기부를 시작으로 학부모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졌던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부가 다른 사람들의 기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에 전 재산을 기부하시던 1999년에도, 본인의 기부 이후에 다른 이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질 것을 기대하셨다고 합니다.

“한동대가 그 때는 참 어려웠지요. 흥해읍에 있는 대학 세 개 중에 제일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해주던 학교였어요. 돈 문제 때문에 총장님이 감옥 가셨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이 학교에 기부하면 조금 더 좋은 학교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주민들 호평도 좋아지고 기부도 더 늘어날 것 아닌가,

그러면 결국 더 좋은 학생들 많이 길러낼 수 있을 거 아닌가. 그래서 한동대에 기부해야 되겠다.’ 했지요.” 강연을 주최한 국제경영대학원 교학팀 권상섭 팀장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재물을 모으느냐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서, “그런 점에서 오늘 김낙중 선생님의 강의는 아주 특별하다. 이 분야야말로 한동의 가치에 가장 맞는 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김낙중 선생님의 전 재산, 5억. 그것은 부모님께 거저 물려받은 것도, 일확천금도 아닌, 평생 동안 고생하신 피와 땀의 열매였습니다. 결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소중한 마음이 한동에 다시 한번 전해지는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한동은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한동의 울타리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한동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기” 어렵지 않아요!

선배들이 물려주는 공부법 For 새내기, ‘선물공새’

지난 5월 25일, 한동에서는 새내기들을 위한 'PT하는 법' 강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 곳에 초청된 강사는 유명한 학습법 강사도, 프리젠테이션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동의 귀한 '선배들이'였습니다.

선물공새는 2009학년도부터 시작된 행사로 '선배들이 물려주는 공부법 For 새내기'라는 뜻을 따 이름 지어진 한동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시간 관리법, 시험 준비법, PT하는 법, 영어 공부법, 리포트 작성법 등 새내기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주제를 가지고 매 학기 3번 정도의 행사가 열립니다. 오늘은 두 선배가 후배들에게 프리젠테이션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직접 공부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아낌없이, 계산없이 퍼주는 선배들의 사랑의 행사는, 사실 예산이 부족했던 센터의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내어 탄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선물공새를 담당하는 한동교육개발센터의 배다현 연구원은 당

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학습법 강사들을 불러 거창한 행사를 열고 싶었지만 예산이 없는 센터 측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했죠. 그래서 한동에 있는 귀한 달란트를 가진 선배 강사를 초청하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아이디어를 주신 것이 우리의 상황에 꼭 맞는, 하나님의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이어 배다현 연구원은 지난 번 '시간관리법' 행사에서 학생강사를 맡았던 김태훈 학우(경영경제 07)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학생은 1학년 때 시간관리를 못하고 방황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같은 방을 쓰는 사람이 한동대, 그것도 선물공새 학생 강사 출신이었던 거예요. 항상 옆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이 자신의 생활방식이 되었다며 군 복학 이후, 학생 강사를 신청했어요. 후배들이 자신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자기가 알게 된 것을 꼭 전하고 싶다고 하면서요. 그 고마운 마음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오늘 행사에 참가했던 이동영 학우(GLS 12)는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강의인데도 정말 전문적인 가르침에 놀랐다” 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선배 강사였던 안경주 학우(경영경제 07)는 “후배들이 열심히 듣고 발전하려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는 강의를 마친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강사로 초청된 김승완 학우(경영경제 08)는 오히려 자신이 배운 것이 많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가 아는 조그만 것이라도 후

배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감사한 것이죠. 사실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한동이 바라는 중요한 배움, 공부해서 남 주자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거든요.”

3년 전, 한동교육개발센터 직원들에게 선물로 다가왔던 선물공새는 이제 한동의 선배, 후배 모두에게 값진 선물이 되었습니다.



버팀; 벗힘; But HIM

한동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졸업생들의 홈커밍데이

“이렇게 바뀌게 될 줄이야...” 한 졸업생은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새로워진 넓은 잔디밭, 증축한 식당, 새로운 기숙사. 모든 것이 신기한 듯 카메라를 들이 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5월 19일, 한동대학교 총학생회에서 모든 학부를 연합하여 '버팀'이라는 이름으로 동문회를 갖는 주말이었습니다. '버팀'은 후배들이 졸업생들에게 "사회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자는 것과 "오직 예수님 밖에 없다(but HIM)"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국각지에서 백 명 남짓한 졸업생들이 와서 새로운 학교 둘러보면서 후배들과 얘기도 하고, 보고 싶었던 교수님을 찾아 뵙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1박 2일을 보냈습니다.

“나의 대학,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

효암채플에서 하얀 장갑을 낀 손을 들어올려 서약을 하는 모습이 예배 후에 펼쳐졌습니다. 한동 명예 서약식이 진행된 것입니다. 명예 서약식은, 학교에 처음 입학하여 한스트*때에 처음으로 하는,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정직에 관한 서약식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정직을 굳게 지키겠다는

졸업생들의 다짐과 함께, 교수님들께서는 직접 졸업생 한 명 한 명 뺏지를 달아주면서 안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의 어려운 상황과 압박 속에서 한동이라는 공동체를 잊지 않고,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비전을 향하도록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전공의 길을 걷고 있는 선 후배들끼리 모여서, 이런 저런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자신이 학생 때 하지 못했던 아쉬운 이야기와 더불어서 세상에 있는 여러 힘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에 후배들은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비전에 관해서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을 묻기도 했습니다. 사회복지 관점에서 참가했던 졸업생 이동석 학우(사회복지 02)는 후배들과의 만남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과 진로에 대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무렵 졸업생들을 위해 후배들이 준비한 동아리 공연 후에, 새로 지어진 9호관에서 함께 야식을



먹으며 도란 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문회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습니다. 교수님들 중에는 이날 찾아온 졸업생들을 기억하며 이름을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금도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고 말씀하시는 교수님

을 보면서 졸업생들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었습니다. 배워서 남주자라는 가치를 졸업생들이 세상에서 이루어 나가는데, 후배들의 응원과 교수님들의 기도가 위로가 되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집’ 벤엘관 완공

학생생활관 제9호관 ‘벤엘관’ 생겨

봄의 기운이 물씬 풍기던 4월, 한동에는 반가운 식구가 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학생생활관 9호관’이었습니다. 지난 해 4월 말 공사를 시작했던 9호관 건립은 당초 예상되었던 2월 말보다 조금 늦어진 4월 말이 되어야 완공되었습니다. 원래 일정이 빠듯했을뿐 아니라 겨우내 날씨가 좋지 못해 공사 일정이 늦어진 탓이었습니다. 꼬박 1년이 걸린 긴 시간 동안 한동은 9호관의 공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한동은 9호관의 건립을 준비하며 학교 내 여러 목소리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생활관을 이용할 학생들과 건립을 실질적으로 준비해 나갈 직원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기회들이 여러 번 열렸습니다. 한동의 생활관은 단순한 기숙사가 아니라 공동체성을 배우는 인성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논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동은 점점 9호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린 만큼 기쁨은 더했습니다. 약 6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9호관에는 체력단련실, 세미나실, 독서실, 보건실, 상담실 등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물론 장애 학우들까지 배려한 시설까지 마련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생활관인만큼 시설도 가장 좋아진 것입니다.

9번 째로 지어진 생활관이어서 가장 ‘9호관’으로만 불리던 이 새 식구에게 하루 빨리 이름을 지어주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학생 생활관을 담당하는 학생 기구인 제15대 자치회 하랑이랑은 한동의 전통공동체를 대상으로 9호관 이름 짓기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교수님과 학생들 외에도 환경미화 아주머니, 경비 아저씨, 교직원 등 모든 한동 공동체들이 새로운 가족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220개의 아름다운 작품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당선된 이름은 신주에 학우(상담사회 11)가 공모한 ‘벤엘관’이었습니다. 신주에 학우는 “벤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픔이 에서를 피해 도망치다가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픔에게 스스로를 나타낸 곳이 벤엘이예요. 한동의 학우들이 지칠 때마다 벤엘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공모전을 주최한 자치회장 강대식 학우(경영경제 08)는 “벤엘관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가는 학우들을 양성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초, 우리학교에서 제일 먼저 지어진 창조관에 살던 학우들은 갖 지은 새 생활관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준기 학우(경영경제 07)는 “창조관에 있다가 여기오니 시설이 너무 좋아져서 마치 천국을 맛보는 것 같아요. 간사님들께서 새로 지어진 전문 상담실에서 학생들 상담도 해주시고, 방들이들과 교제한 공간도 넓어져서 기뻐요.”

한동은 이렇게 새로운 식구인 벤엘관의 탄생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벤엘관의 탄생을 위해 건축 기금 및 일반 기금 등으로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한동은 새 식구를 맞았고 이렇게 또 한 번 웃고 있습니다.

후원안내

갈대상자

하나님께서는 작은 갈대상자를 통해 모세를 지키셨고, 훗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길러내셨습니다. (출2:3)
 작지만 큰 대학, 한동대학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지도자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한동대학교를 향한 후원자님들의 기도와 후원의 손길을 통해 한동의 갈대가 더욱 견고히 역이기를 소망합니다.

▪ 한동대학교 갈대상자 : 하나은행 505-09441-00104, 국민은행 640-01-0001-877

팀워크(교육 선교 프로그램)

• TimWork(팀워크) : Tim은 Timothy(디모데)의 줄임말로 '디모데 사역'이라는 뜻
 한동에는 전 세계 60여 개발도상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지식과 정직을 배우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 그 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의 연합전선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 나라를 변화시킬 이들은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갖습니다.
 디모데를 사역자로 이끌어 준 바울과 같이 개발도상국과 미전도지역에 파송될 이 시대의 청년 디모데들에게 바울이 되어주십시오.

▪ 한동대학교 팀워크 : 하나은행 518-910023-11205, 국민은행 848237-97-100016

보아스

"어머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고백만을 가지고 낮은 곳을 향해 기꺼이 믿음의 걸음을 떼었던 룻.
 하나님께서는 이 굳건한 믿음의 여인에게 보아스라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한동대학교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안은 채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걸음의 끝에 예비하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따르는 한동 믿음의 행진에 많은 격려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한동대학교 보아스 : 하나은행 518-810133-24005, 국민은행 640-01-0052-426

건축기금

한동대학교는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세계 각국의 차세대 지도자들이 모여 함께 꿈을 품고 더불어 성장해가는 글로벌 타운(Global Town)입니다.
 세계로 뻗어나갈 글로벌 리더들이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한동 글로벌 타운은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원을 통해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따뜻한 정성과 기도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이 곳이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길 희망합니다.

▪ 한동대학교 건축기금 : 하나은행 518-910023-12905, 국민은행 640437-04-000024

한동 첫 열매(첫 월급)

한동대학교를 위해 곳곳에서 보내 주시는 모든 기부금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학업에 임하는 학생들에게 날마다 따뜻한 힘과 격려가 됩니다.
 그러나 일생에 딱 한 번 주어지는 특별한 기부금이 있습니다.
 한동을 떠나 처음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고 설렘으로 받은 첫 월급.
 온전한 첫 마음과 수고의 정성이 가득 담긴 이 사랑은 자신이 그러하였듯 후배들이 꿈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 선배들의 가장 큰 표현입니다.
 한동에서만 볼 수 있는 이 기부금을 통해 또 다른 열매가 맺히길 기대합니다.

▪ 한동대학교 발전기금(기타지정기부) : 하나은행 518-910007-34704

지정기부금

한동대학교의 발전기금으로는 일반발전기금과 지정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일반발전기금은 기부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대학에 일임하는 기금이며, 지정발전기금은 기부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하는 기금을 뜻합니다.
 기부자의 뜻이 담긴 만큼 지정 기부금은 한동과 학생들에게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한동대학교 발전기금(기타지정기부) : 하나은행 518-910007-34704

후원가입 · 정보변경 · 종료안내

1. 한동대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sarang.handong.edu>)를 통한 신청
2. 직접 신청은 한동대 발전협력팀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발전기금과 세금

한동대학교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세법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소득의 100%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에서 발급 가능
 한동대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sarang.handong.edu>)에서 발급 가능

한동대학교 발전협력팀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전화 : 054-260-1063~4
 팩스 : 054-260-1069
 E-mail : sarang@handong.edu
<http://sarang.handong.edu>

미국 LA H.I.F (Handong International Foundation)

(Cornerstone Church 내 위치) 24428 South Vermont Avenue, Harbor City, CA 90710 USA
 전화 : 310-530-4040 | 팩스 : 310-530-8400
 E-mail : lahandong@hotmail.com

후원자님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미리 알려주시면 반송 우편료가 절약되어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사업에 더욱 소중히 쓰여질 것입니다.

2012. 1. 1 ~ 2012. 6. 30 신규후원자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강나연	김미경	김정자	박명옥	손남일	윤영기	이윤희	정연실	한나현	홍계식
강석기	김미경	김정태	박민아	손서영	윤종욱	이인영	정영채	한만홍	홍기웅
강소정	김미리	김정혜	박삼병	손신숙	윤지예	이정덕	정영후	한은자	홍석태
강영실	김미형	김정호	박상원	손하영	윤형석	이준원	정영경	한화룡	홍승환
강영화	김민태	김정화	박상원	송상길	이건창	이지선	정인권	허경미	황경자
강일	김복희	김정희	박성신	송상순	이경희	이지원	정정숙	허경재	황권숙
강재천	김상길	김종명	박성희	송용범	이광표	이지혜	정종훈	허경희	황성식
강지원	김상범	김종준	박성희	시은혜	이규준	이진규	정현재	허용철	황재웅
강혜원	김상욱	김진기	박수경	신강동호	이금복	이진형	정해진	홍경열	황태숙
강희숙	김성숙	김창룡	박수주	신광현	이나경	이춘미	정희복	John F. Bailey	
강희철	김성중	김창준	박승호	신대응	이다혜	이한길	조경희	새벽이슬동신교회	
고병관	김성진	김태신	박신광	신상보	이도윤	이한양	조귀임	새생명교회(New Life Baptist Church)	
고봉식	김송은	김태원	박연정	신선일	이동구	이한양	조명호	신반포교회	
고일균	김수근	김태희	박영식	신운석	이동원	이해남	조명희	한길교회	
고찬영	김수기	김팔동	박은석	신유진	이동진	이현주	조미애	홍해중앙교회	
공경태	김숙희	김한수	박익수	신정식	이명여	이형근	조상익	(주)경북산업(김경범)	
공은영	김승훈	김향희	박재찬	신지현	이미숙	이혜진	조영수	(주)선영종합엔지니어링	
곽예슬	김신기	김현민	박정주	안봉자	이미영	임경호	조예나	(주)뽕애플카스	
곽창주	김신찬	김현옥	박종만	안부영	이병준	임동하	조이삭	(주)앤비전	
권덕운	김연화	김혜자	박준	안석열	이병진	임두환	조찬목	(주)지오시스템리서치	
권미숙	김영규	김혜정	박중수	안성진	이사야	임명안	조한경	(주)진산	
권병수	김영은	김휘연	박지은	안은수	이삼엽	임영태	주재원	(주)테크노니아	
권수란	김영찬	김희연	박지혜	안지성	이상열	임은숙	진상권	이월건건설(주)	
권순일	김예슬	김희년	박진우	양나혜	이상훈	임재범	채애란	제일전자부품(주)	
권순홍	김옥분	나경범	박찬규	양명덕	이새	임종애	채은선	태양수중개발	
권인순	김용복	나미고	박철수	양승민	이성화	임현숙	천세영	사단법인 나눔과기술	
김경수	김용식	나현숙	박한영	양옥희	이수은	장공순	최갑림	예은장학재단	
김경숙	김용홍	남경필	박혜민	어윤	이수진	장기성	최광순	진심식품	
김경자	김우림	노금순	배유나	엄대선	이순옥	장동현	최두정	포항CBMC	
김경화	김원근	노미숙	배은희	엄대섭	이승호	류명순	최률	포항제철소외주파트너	
김계영	김원연	노병우	백양기	여성철	이시명	장석현	최병석	사협회	
김교일	김윤수	류기택	백유빈	오성훈	이신호	장신식	최병윤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김기순	김은용	백재현	백지혜	오영	이연우	장은미	최장매	한국해외선교회연회동	
김낙운	김이태	류지예	백형식	오정훈	이영재	장현호	최장우	사무소	
김남규	김인수	맹재성	변영숙	우은정	이영희	장형기	최재환	KIAA	
김남규	김인택	문선주	서강석	우인숙	이옥희	장효훈	최정숙		
김노영	김재근	문정리	서경웅	원성울	이요한	전영찬	최정자		
김덕기	김재구	민동명	서용석	유린자	이춘란	전형식	최종규	신규후원자 370명	
김도연	김재홍	박기정	서용석	유시현	이원호	정남숙	최찬열	익명 입금 100건	
김명	김정미	박대석	서정식	유해열	이유진	정덕용	최혜영		
김문선	김정서	박대진	석경림	윤경민	이윤주	정석지	편정범		

하나님의 갈대 엮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
그 꿈과 비전을 품고 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때때로,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서는 많은 후원자들을 통해 갈대상자를 엮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따뜻한 손길을 통해

황량했던 캠퍼스가 초록빛으로 채워져 갔고

하나님의 인재들이 양육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믿음의 갈대 한 올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청년들을 키워낼 것입니다.



sarang.handong.edu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한동은 하나님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